



경찰에 막힌 '전봉준투쟁단' 상경투쟁을 위해 트랙터를 몰고 이동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소속 농민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비행장사거리에서 경찰에 막히자 길을 뚫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버스' 상경·국회광장 토론회 '탄핵' 압박

광주 버스 3대 국회로
교수 791명 시국선언문
국회의원 3백명에 전달
대학생·문화예술단체 동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9일에도 광주·전남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가결 압박이 이어진다.
광주 시민 130여명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9일 오전 '탄핵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향한다. 이들은 국회 잔디밭에서 노란 우산을 펼

쳐 '탄핵'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당일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는 각종 탄핵 촉구 활동에 참가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표결을 앞두고 8일 국회 본관 광장 앞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또 퇴진행동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과 이튿날까지 국회 광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9일 국회 전면 개방 문제와 관련,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기로 했다.
촛불시민연대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과

대회의실에서 시국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 탄핵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은 8일 오전 서울대 4·19 기념탑 앞에서 2차 시국선언을 하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탄핵소추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이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반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수 791명이 선언한 이 시국선언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팩스로 전달됐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졸업생과 학생 1121명도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은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일 수 없고 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인 단체인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전국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도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국회의 결단을 주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알립니다

언론계 공동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정·시행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정치과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및 보도는 유권자들이 언론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해 12월 8일 선포했습니다.
본사도 여기에 동참해 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본사는 이 준칙의 실천을 바탕으로 선거보도의 신뢰와 품격을 더욱 높일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6년 12월 9일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

이승만·윤보선 하야... 박정희 피살 노무현 1년만에 탄핵... 헌재서 기각

비운의 퇴진 대통령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역사는 비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0명의 전직 대통령 중 4명(3명은 하야)이 임기도중 하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 사례가 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948년부터 12년(1~3대)을 집권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 선거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았다. 그는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를 진압하는 강경책을 펼쳤으나 민주화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19혁명으로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에 오른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퇴진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유혈사태가 번질 것을 우려, 하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부터 9대까지 18년간 장기집권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급서한 첫 대통령이 됐다.
이어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다음해 5·17 내란, 이어진 5·18 광주항쟁 등에서 권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해 8월 16일 하야했다. 재임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역대 최단기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개시 1년여만인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의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벌어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돼 검찰 수사 동기와 배경, 방식을 두고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은 물론 다른 대통령들도 퇴임 후 구속되거나 재임 중에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정치체제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대통령 출석 신문... 강제성 없어 180일 이내 '파면'이나 '기각' 결정

헌재 탄핵 심판 절차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따라서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될 전망이다.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헌재법은 당사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도록 한다. 이는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한 규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소환이 통보된 증

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시 잡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판하도록 해 사실상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고 변론은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장소는 현재 내 심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출석이 강제되지 않은 만큼 대리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현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자격을 잃은

면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사건을 인계받을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단된다.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현재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탄핵심판 대상이 선고 전에 파면된 경우 현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이를 파면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나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임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는 의견과 '사임과 파면은 법적 성질이나 효과가 다르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

전국시도지사협, 대구 서문시장에 성금 1억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대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문시장 화재피해 극복 등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윤찬영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7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10개 특별·광역시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문시장 화재,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조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고 회의가 끝난 뒤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또 서문시장 피해 극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성금 1억원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2000만원, 강원도는 1000만원의 성금을 건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바쁜 와중에 대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국세-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출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통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g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무료 대특강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311호)
일시	2016. 12. 14(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 투자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 전라남도 개발계획에 따른 실무투자처 공개
-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한방에 끝내기
 - 1) 수익형부동산의 과학적 투자기치 분석법 공개
 - 2)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및 피해할 위험 분석
 - 3) 광주/전남 지역 최고의 입지와 매도/매수 타이밍 실무자 매물공개
 - 4)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물건별 분석 및 투자노하우 전수
- 국토개발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토지투자전략 대 공개
 - 1) 개발지 토지 소유주자로 수익내는 매물 찾기법 공개
 - 2) 돈이 되는 농지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걸까?
 - 3)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가치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완전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 영지부동산 부장, 영지부동산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김영표 기자